

러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12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7
IV. 국제신인도	9
V. 종합의견	10

I. 일반개황

면적	17,098 천 km ²	G D P	13,260억 달러 (2015년)
인구	1.4억 명 (2015년)	1 인 당 GDP	9,243달러 (2015년)
정치체제	대통령 중심제	통 화 단 위	Russian Ruble(RUB)
대외정책	동북아시아 및 신흥국들과의 협력 정책	환 율 (달러당)	66.7 (2015년 평균)

- 러시아는 세계 최대 면적의 영토를 보유한 국가이며, 2015년 말 기준으로 세계 2위의 가스 생산국, 3위의 원유 생산국으로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
- 푸틴 대통령이 2012년부터 3기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강력한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있음.
- 2014년 이후의 유가하락과 함께 크림반도 병합,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내전 개입 등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로 경기가 침체하였으며, 중국,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음.
- 현재 러시아, 벨라루스, 카자흐스탄, 아르메니아, 키르기즈 등 5 개국이 가입하여 2015년에 설립된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: Eurasian Economic Union)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유럽연합과 같은 연합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	2016 ^f
경제성장률	3.6	1.3	0.7	-3.7	-0.8
재정수지 / GDP	0.4	-0.9	-0.7	-3.2	-3.4
소비자물가상승률	5.1	6.8	7.8	15.5	7.2

자료: IMF

□ 국제에너지 시장의 저유가 지속으로 2016년 -0.8% 경제성장률 추정

-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, 2016년 하반기 유가의 안정추세에 따라 2015년의 -3.7%보다 개선된 -0.8%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됨.

- 산업생산 증가율은 2015년 1/4분기 이후 2016년 2/4분기를 제외하고 마이너스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, 고정자본 투자율도 하락하여 2015년의 -7.7%에 이어 2016년에는 -5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

□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지속

- 2013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, 2016년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3.4%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됨.

- 재정수지의 적자 전환은 최대 수출품인 원유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, 시리아 내전 개입 등 군비지출 증가가 주요한 원인임.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

- 러시아 루블화 환율의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락함.

- 루블화 환율의 큰 폭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연평균 소비자

물가상승률은 2014년 7.8%, 2015년 15.5%로 크게 상승하였으나, 2016년에는 7.2%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.

-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라,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6월에 11%에서 10.5%로 인하하였으며, 9월에는 10%로 0.5%p 추가로 인하하였음.
- 중앙은행은 2015년에도 연초의 기준금리 17%에서 11%로 다섯 차례 인하한 바 있음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원유,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

- 국가경제가 에너지 부문에 크게 의존하여 국제에너지 시장의 가격 변동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경제구조임.
- 2015년 기준으로 원유, 천연가스 및 광물 부문이 GDP의 27%, 재정의 43%, 수출의 63% 비중을 차지하는 자원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임.
- 전반적으로 식품업을 제외한 제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,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.
- 가정용 전자제품, 승용차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조업 품목에서 러시아 제품은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.
- 이러한 국내 산업생산의 취약성은 2014년 이후의 경우와 같이 환율의 상승에 따른 수입품 가격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요인이 됨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풍부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 잠재력

- 2015년 기준으로 전세계 원유 생산의 12.4%, 천연가스 생산의 16.1%를 차지하는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국으로 유럽과 동북아시아 등에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며, 북극해 등에 미개발된 유전,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음.
- 2015년 기준으로 원유는 세계 6번째 규모의 1,024억 배럴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, 세계 3번째 규모의 일일 1,098만 배럴 생산하였음.
- 천연가스는 32.3조 m³ 매장량과 연 5,733억 m³ 생산으로 각각 세계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하고 있음.

□ 국부펀드 및 예비기금 활용을 통한 발전 가능성

- 에너지 수출소득을 통해 축적한 국부펀드와 예비기금을 통해 경제안정과 인프라 개발, 기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.
- 국부펀드 규모는 2016년 9월 기준으로 GDP의 720억 달러이며, 예비기금은 382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.
- 이 자금들은 재정지원, 환율안정을 위하여 지원되었으며, 중소기업지원 등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됨.

다. 정책성과

□ 극동러시아 지역 발전을 위해 2015년 이후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있으며, 동방경제포럼을 정기적으로 추진

-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연해주의 16개 지역에 경제특구 형태의 자유항을 지정하고,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, 관세자유지역 운영, 외국인 무비자 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.
- 자유항을 항만물류, 과학기술, 수산업, 관광 등 4개 부문으로 육성하고 이 지역 투자에 관심을 가진 한국, 중국, 일본의 기업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기대함.

- 2016년에는 연해주 이외의 캄차트카, 하바롭스크주, 사할린주, 추코트카 등에도 자유항이 지정되었음.
- 러시아 정부는 2015년 이후 극동러시아의 전지역에 걸쳐 경제특구 형태의 선도개발구역을 지정하여 농업, 에너지, 물류,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.
- 2016년 11월 기준으로 연해주, 하바롭스크주, 사하공화국, 추코트카 등에 13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음.
- 2016년 10월 기준으로 91개 프로젝트에 대한 입주 협약이 체결되어, 10개의 외국기업이 입주하였으며, 입주를 신청한 외국기업은 15개 사에 달함.
- 입주한 외국기업은 중국 4개, 일본과 호주 각각 2개, 리투아니아 1개 사이며, 입주신청기업은 중국 8개, 한국과 싱가포르, 이탈리아가 각각 2개, 카자흐스탄 1개, 이스라엘 1개 등임.
- 극동러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대대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음.
- 2015년부터 매년 9월 2차례 회의가 개최되어, 한중일의 정부 관계자들과 다수의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극동의 주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, 2017년 9월에 3차 포럼의 개최가 예정됨.
- 특히, 2016년에는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참석하여 러시아와 양자간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음.

□ 대규모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

- 2016년 12월 최대의 국영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의 지분 19.5%를 스위스 업체인 글렌코어와 카타르 국부펀드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매각하였음.
- 러시아 정부는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적자로 주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해왔으며, 이번 지분 매각으로 인한 정부 재정수입은 113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음.

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 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	2016 ^f
경 상 수 지	71,282	33,428	57,513	69,000	38,564
경 상 수 지 / G D P	3.6	1.5	2.8	5.2	3.0
상 품 수 지	191,663	180,566	188,931	148,513	94,376
수 출	527,434	521,835	496,807	341,467	262,643
수 입	335,771	341,269	307,875	192,955	168,266
외 환 보 유 액	486,577	469,603	338,155	319,835	329,391
총 외 채 잔 액	636,400	728,864	599,901	515,848	507,748
총 외 채 잔 액 / G D P	31.6	32.7	29.5	38.9	40.0
D S R	25.7	33.5	34.2	30.8	21.8

자료: IMF, EIU, OECD.

□ 2015년에 이어 수출과 수입규모가 동시에 감소하였으며, 경상수지는 흑자 유지

○ 국제에너지 시장의 저유가 지속으로 수출이 감소하였으며,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국내수요 위축으로 수입도 감소.

- 2016년의 수출액은 2015년에 비해 30% 하락한 2,626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나, 수입액도 동시에 감소하여 94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경상수지는 GDP 대비 3.0% 흑자가 예상됨.

- 실질가처분 소득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민간 소비가 2015년 전년도에 비해 -9.4%, 2016년 -1.9% 감소하여 상품수입 규모가 감소하였음.

□ 외환보유액 규모 다소 증가

○ 2016년 국제유가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며, 외환보유액 다소 증가

-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2015년 5월 3,077억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증가추세이며, 2016년에는 11월 말 기준 3,236억 달러로 전년말의 3,198억 달러 비해 증가하였음.

□ 환율은 1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 기록

- 2016년 국제유가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환율은 1월말 미 달러 대비 83.6 루블을 기록한 이후,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12월 말 환율은 미 달러 대비 61루블을 기록

□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낮으며, DSR은 다소 높은 수준

-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2015년의 38.9%에서 2016년 40%로 다소 상승하였으나, 안정적인 수준임.
- DSR은 2015년의 30.8%에서 2016년 21.8%로 하락하였으나,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.

Ⅲ. 정치·사회 동향

1. 정치안정

□ 푸틴 대통령의 안정적인 정치지도력 유지

- 푸틴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로 안정적인 지도력을 유지하고 있음.
 - 2016년 11월 여론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2012년 3기 집권기 들어서 가장 높은 86%를 기록하였음.
 -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강력한 리더쉽과 대외적으로 시리아 내전에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.
- 푸틴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의회 연례연설을 통해 러시아 경제가 농업, 방산, IT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냄.

□ 2016년 9월의 총선거에서 집권당의 압승

- 현재의 집권당인 '통합러시아당'이 전체 의석의 76%를 차지

- 전체 450개 의석 가운데 343석을 획득, 공산당이 42석, 자유민주당이 39석, 정의러시아당이 23석을 차지하여 압승을 거둠.
- 지역구 225, 비례대표 225석으로 선출하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의 200곳이 넘는 곳에서 여당이 당선되는 압도적인 지지를 거둠.

2. 사회안정

□ 경기침체에 따라 노동시장 상황이 다소 부정적이나 사회 안정 유지

○ 실업률이 상승하고, 공공부문 위주로 실질 임금 감소 추세

-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2014년의 5.2%에서 2015년에는 5.6%, 2016년 5.8%로 상승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, 외국노동자들의 자국으로 귀국이 이에 대한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함(2014년의 경우, 우즈베키스탄 11.5%, 타지키스탄 11.8%, 키르기즈 11.9%의 노동인력이 감소하였음).
- 실질임금 하락은 명목 임금상승률(1월부터 8월까지 평균 2%)이 인플레이션율(1월부터 8월까지 평균 8%)보다 크게 낮은 공공부문 노동인력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.

3. 국제관계

□ 일본, 중국과의 협력 강화

○ 일본은 적극적인 대러 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
- 2016년 5월 소치에서 개최된 러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에너지, 의료 분야 등을 비롯한 8개항의 경제협력방안을 러시아 정부에 제안하는 등 대러 협력을 위한 다수의 프로젝트들을 제안하였음.
- 이후 양국은 정부내에 각각 상대국과의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, 러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위해 러시아직접투자펀드(RDIF)와 일본의 국제협력은행(JBIC) 간에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기금

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음.

- 푸틴 대통령은 12월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,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기대한 쿠릴 4개 섬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.
- 중국은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, 다양한 부문에서 러시아의 극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.
 - 시베리아 가스전에서 중국으로 가스를 공급하게 될 가스관 건설공사가 2014년 착공되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.
 -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자루비노 항 등의 항만 개발, 프리모리예 등의 운송로 건설과 농업,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음.

□ 서방과 갈등 관계 지속

-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,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의 분쟁으로 2014년 초 시작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지속되고 있음.
 - EU는 2016년 12월 대러 경제제재를 6개월 연장하는 것을 결정하여, 2017년 7월까지 경제제재 기간이 연장되었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OECD 회원국 ECA에 대해 일부 연체

- 2016년 6월 말 기준 러시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승인금액은 단기 19.46억 달러, 중장기 298.37억 달러 등 317.83억 달러에 달함.
 - 단기 외채 가운데 180만 달러가 연체 중이고, 이 가운데 10만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이며 중장기 외채 가운데는 9,780만 달러가 연체되고 있

으며, 이 가운데 5,680만 달러가 회수불능 상태임.

2. 국제시장 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당 행	C2(Negative) (2015. 10.)	C2(Stable) (2014. 12.)
OECD	4등급 (2016. 1.)	4등급 (2015. 2.)
Moody's	Ba1(Negative) (2015. 2.)	Baa3(Negative) (2015. 1.)
Fitch	BBB-(Stable) (2016. 10.)	BBB-(Negative) (2015. 7.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: 1990. 9. 30 (북한과는 1948. 10. 12)

□ 주요협정: 무역협정(1990), 원자력협력협정(1999), 관광협정(2001), 에너지분야협력협정(2002), 항공협정(2003), 우주기술협력협정, 가스산업협정(2006), 비자협정(2010), 해상운송협정(2011), 근로활동협정(2012), 사증면제협정(2013)

□ 대러시아 직접투자(2016년 월말 누계): 528건, 24.3억 달러

□ 교역규모

<표 4> 한·러시아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3	2014	2015	주요품목
수 출	11,149	10,129	4,686	자동차, 자동차 부품, 합성수지
수 입	11,496	15,669	11,308	원유, 석유제품, 석탄
합 계	22,645	25,798	15,994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의견

- 2016년 경제성장률은 국제유가가격 둔화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2015년의 -3.7%에서 -0.7%로 적자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.
- 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제조업 생산품의 낮은 경쟁력이 경제의 취약성을 지적되고 있으며, 이러한 취약성으로 2014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큰 폭 상승으로 연결됨.
-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86%로 매우 높으며, 여당에 대한 지지도도 높아 2016년 9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결과 전체 의석의 76%인 343석을 차지함.
-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지속에 따라 EU, 미국과 갈등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, 극동러시아 개발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한 경제협력에서 일본, 중국 등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음.
-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2016년 말 기준 40%로 안정적인 수준이며, 외채상환비율이 2016년 21.8%로 다소 높은 수준이나 2015년의 30.8%에 비해 하락하여 안정되고 있는 추세임.

조영관 선임연구원(☎02-6255-5759)
E-mail: ykj@koreaexim.go.kr